

해남 '전국 최대'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삼산면 일원 60ha 규모... 기본설계 용역 최종보고회 거쳐

해남군이 전국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한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전남 농정상황실에서 해남군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기본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남군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는 삼산면 평활리에 약 60ha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비롯해 전라남도 과수연구소도 들어선다.

또한 고구마 연구센터 건립,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조성, 과학영농 실증시험기반구축 사업도 추진돼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체계적 단지 구성을 위한 시설 조성 구상안과 부문별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기후변화대응센터 및 과수연구소와 연계성, 효율적 연구시설의 배치계획, 관계용수 확보 방안, 녹지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594억원을 투입해 대지 면적 3ha 부지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센터를 신축한다.

2023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으로 기후변화 정책지원

부, 기후데이터부, 홍보관 등이 들어선다.

또 전라남도 과수연구소는 2024년까지 총 공사비 295억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25ha 부지 내 지상 2층 규모의 지역특화과수지원센터를 신축하고, 비닐하우스, 온실, 노지 실증포를 건립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전남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으며, 2023년 하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

고구마 연구센터 건립 등은 공모에 선정돼 설계 등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해남군에서 조성하는 면적은 약 32ha 규모이다.

맹현관 군수는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 등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해남군에서도 농업연구단지를 차질없이 조성해 국가적 과제인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김동주 기자

담양 '모바일 헬스케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건강증진사업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 전국 우수기관

담양군은 2022년 건강증진사업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 통합성과대회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은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야별 휴대용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해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 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만성질환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건소의 전문 인력이 6

개월간 대상자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영양, 운동 등 건강 콘텐츠와 건강 상담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사업이다.

2022년 사업 추진 결과 참여대상자의 74.1%가 건강위험요인(혈압, 복부둘레, 공복혈당, 중성지방) 중 1개 이상 개선되었고, 전체적인 서비스 만족도는 92.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병노 군수는 "이번 표창에 힘입어 앞으로도 양질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승채 기자

순천, 공직윤리제도 운영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순천시가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한 '공직윤리제도 운영 실태점검'에서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7월 광역·기초 지자체 등 2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산등록 및 심사, 취업·행위제한 등 11개 분야 30개 항목에 대해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직윤리제도 전반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자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재산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등의 재산등록 업무추진 실적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시는 공직자가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다"며, "공직자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 정년퇴임 공무원 환송식 "16명의 영예로운 퇴직 축하"



광양시는 오랜 세월 동안(26~41년)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한 정년퇴임 공직자 16명에 대해 광양예술창고에서 지난 19일 환송식을 가졌다.

퇴임 공무원 환송식은 광양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한 퇴직 공무원의 영예로운 퇴직을 축하하고 묵묵히 곁에서 응원해 준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개최했다.

올해 하반기 퇴직자는 이정희 국장, 이태욱 소장, 문병만 국장, 박주필 소장, 이기철 소장, 나승도 과장, 백형근 과장, 백현숙 과장, 김인경 소장, 이정재 팀장, 김석천 과장, 남명우 과장, 안진택 과장, 송재섭 팀장, 김중운 주무관, 서경영 주무관이다.

2022년 12월 31일자로 공직을 떠나는 분들에게 정인화 광양시장은 공로패를 전달하며 떠나보내는 안타까움과 공로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정년 퇴임하는 공직자의 노고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축하로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지만, 시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석별의 정을 나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공직 퇴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고 응원하면서 "비록 공직을 떠나지만, 시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석별의 정을 나눴다.

영암 청년 56.2% "3년 후에도 거주할 생각 있다"

호남통계청과 공동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영암군이 호남지방통계청과 공동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영암군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에 거주하는 청년 인구는 1만 673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1.6%를 차지했다.

이들 청년 인구의 71%가 상호읍(56.6%)과 영암읍(14.4%)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암군 청년 10명 중 5명(45.6%)은 다 지역에서 전입했다. 전입 직전 거주지는 호남권(49.1%)과 수도권(19.5%), 광주광역시(1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3년 후에도 영암군에 거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10명 중 6명(56.2%)이었으며, 희망하는 주거 관련 정책으로는 공공주택 확대(43.3%)에 이어 보증금·전세금 대출지원(31.9%) 등이 차지했다.

청년들의 결혼여부는 절반이 조금 넘는 55.9%가 '결혼해야 한다'고 답했다. 결혼 적정 연령으로는 '30~34세'가 가장 많았다.

필요로 하는 출산·육아 정책으로는 주거비 부담 완화가 59.7%로 가장 많았으며, 출산 장려금 확대와 무상보육 확대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향후 영암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청년정책으로는 주거 및 생

활안정 정책, 청년 고용촉진 정책, 청년 복지증진 정책 등을 꼽았다.

이번 통계조사는 영암군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49세 청년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항목으로는 기본사항, 주거, 가족, 건강, 문화여가, 삶의 질, 노동, 일자리, 취업지원정책, 경제, 영암군 특성항목 등 11개 부문 42개 지표로 구성됐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해 조사한 이번 통계결과를 바탕으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을 포괄하는 통합 정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젊은 생각과 혁신적인 방식으로 군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형두 기자

완도 신학리 농촌체험휴양마을 '으뜸촌' 선정

농림부 주관 평가... 체험·음식·숙박 1등급 받아

완도군은 20일 군외면 신학리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에서 '으뜸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생활 체험·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비롯해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전국 310개 농촌관광사업을 대상으로 등급 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해 으뜸촌을 선정했다.

농림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합동으로 체험, 음식, 숙박 등 3개 부문에 걸쳐 평가한 결과 신학리 농촌체험마을은 3개 부문 모두 1등급을 받았다.

이 마을은 전국 최대 난대림이 분포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 대상지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환경이 우수하다. 또 해양치유 프로그램 중 하나인 노르딕워킹과 해초 비누 만

들기, 천연 염색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며 귀농귀촌인들이 '완도에서 살아보기'를 경험할 수 있는 힐링의 장소로 알려져 있다.

'으뜸촌'으로 선정된 마을에는 현관이 수여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상품 개발, 사무장 활동비 등의 정책 지원이 주어진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공동체 활성화와 농업인의 소득 창출에 보탬이 되고, 더 나아가 완도만의 특별한 농촌체험으로 힐링의 기회를 제공해 관광객과 인구 유입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장성 명품 '불태산 딸기' 본격 출하

진원농협 산지유통센터서 출하식



장성군이 자랑하는 명품 과일 '불태산 딸기'가 본격 출하를 알렸다.군은 13일 진원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공선희 출하식을 갖고 딸기 판매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행사에는 김한중 장성군수와 정병철 진원농협 조합장, 광주공판장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했다.

진원면 불태산 청정 환경에서 재배되는 불태산 딸기는 특출난 맛과 향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6~7일 제주도에서 열린 장성군 농특산물 판촉행사에서도 조기 매진돼 명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GAP(지에이피,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인증을 받아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걱정 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공선희 소속의 전문 선별사들이 까다롭게 고른 상품만을 출하해 균등한 품질을 지닌 것도 장점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진원 명품 불태산 딸기가 올해도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농가 소득 안정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에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성·심석식 기자

박우량 신안군수

지속가능발전 포럼 참석

박우량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장(신안군수)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2022년도 제3회 지속가능발전 정책 포럼'에 참석했다.

제3회 지속가능발전 정책 포럼은 국회의원 김중민, 국회의원 윤창현, 국회의원 양정숙,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

이번 정책포럼은 ▲재정부출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후 국정의 전환기적 정책에 맞는 '국민, 현장의 목소리 청취의 장' 마련, ▲국회, 중앙 정부 등 국가의 역할 확대와 민간 및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통합·조정 의 거버넌스를 토론했는 자리이다.

정책 포럼에서는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청년들의 요청, 실행력 있는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모델에 대해 발표했으며, 지속가능발전 정책 토론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이행 활성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제언에 대해서 패널들간의 상호간의 토의와 기본법 본격 시행 앞두고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방향 등도 함께 토론했다. /신안·백정래 기자

광양, 내년부터 임신부 교통비 확대 지원

기존 10만원→20만원

광양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임신부의 산전 검진을 위한 교통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임신부 교통비는 교통약자인 임신부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여 모성과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유류비 증가 등 경제 물가상승으로 인해 임신·출산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현실성에 맞는 체감도 있는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비를 확대했다.

광양시 임신부들은 임신 20주 이상-출산 전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1회에 한해 20만 원을 지

원받는다. 지원신청은 본인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임부수첩, 통장사본이다.

그 밖에도 광양시보건소는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임신부 산전 무료검진(기형아 및 초음파), 임신부 영양제 무료 지원, 고위험 임신부의료비 지원 등 임부와 아기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조미옥 통합보건과장은 "산전 진료를 위해 병·의원을 방문하는 임산부들에게 교통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임신·출산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부와 아기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조순희 기자

함평, 여가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획득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모범적... 4번째 재인증 통과

함평군은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인증기관 심사에서 우수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출산·양육, 근무환경 개선 등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함평군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매 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정시퇴근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도,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여성가족부 전문 심사

원의 현장심사와 서류심사, 직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

함평군은 이번 재인증으로 오는 2025년까지 3년 간 '가족친화 우수기관' 자격을 유지한다.

이로써 지난 2014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최초 선정된 이래 2017년 연장, 2019년 재인증에 이어 올해 또다시 재인증 심사를 통과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발굴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동희 기자

순천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출판기념회

동부복지관에서 어르신 8명의 삶 듣고 읽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6일 동부복지관에서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출판기념회는 자서전을 출간한 8명의 어르신을 비롯해 가족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어르신들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시 낭송, 글 낭독, 자서전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출판된 자서전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50여 명의 어르신들 중에

마지막까지 남아 글을 완성한 어르신 8명의 책이다.

김중남 노인복지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노력한 결과가 8권의 책으로 출간됨을 축하한다"며 "자신의 역사를 한 권 책으로 만드는 데 도전한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격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살아온 삶을 책으로 출판하는 사업이다. /순천·조순희 기자